

보도시점 2025. 3. 7.(금) 10:30 배포 2025. 3. 7.(금) 10:30

먹거리 등 물가안정에 전부처 총력 대응 방한관광 활성화 및 과학기술분야 AI활용 지원

-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 매주 최대 500톤 방출, 무 비축물량 도매가 70% 수준으로 공급
- 코코아 가공품과일 칵테일 등 6종 신규 추가하여 총 20종의 식품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 및 AI+SCIENCE 활성화 방안 이달 중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7(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를 주재해 ①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 ②AI+ SCIENCE 활성화 방안, ③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④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⑤수산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통계청 등

김 차관은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며, 봄동·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 6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총 20종^{주)}에 대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업계도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주) (기존) 옥수수(가공용), 대두(채유, 대두박용), 매니옥칩, 설탕, 조주정, 감자·변성전분, 커피 생두, 코코아 생두, 커피농축액, 인스턴트 커피, 오렌지농축액, 파인애플주스, 토마토 페이스트, 으깬감귤류 등 14종
(신규) 코코아가루,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으깬 파인애플, 과일 칵테일, 기타 단일 과실주스 등 6종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분야 AI 활용 확산을 지원하여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 개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 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정원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4-215-2811)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15-2731)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안경우	(044-215-4551)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책임자	과 장	박언영	(044-215-4610)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61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1-2232)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물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겠습니다. 봄동·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총 20종^{주)}의 원가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 (기존) 옥수수(가공용), 대두(채유, 대두박용), 매니옥칩, 설탕, 조주정, 감자·변성전분, 커피 생두, 코코아 생두, 커피농축액, 인스턴트 커피, 오렌지농축액, 파인애플주스, 토마토 페이스트, 으깬감귤류 등 14종
(신규) 코코아가루,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으깬 파인애플, 과일 칵테일, 기타 단일 과실주스 등 6종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도 구체화하겠습니다.

최근 방한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일본 등 인접국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EU 등 주요국*은 연구개발분야에서도 AI를 적용해
R&D 혁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 연구자에게 AI모델,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NAIRR 프로그램 착수(24~, 2년간 1조원)
(EU) 연구자에게 대규모 컴퓨팅 자원, AI교육 등을 제공하는 유럽AI과학연구소 설립 등 추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AI 활용이 확산되도록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컴퓨팅 자원, 고품질 데이터, AI 이해력을 갖춘 전문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